

호남권 공정거래 분쟁 5년새 6배 늘었다

가맹 사업·불공정 하도급 관련 가장 많아

신청인 불편 해소... 조정원 호남분원 신설 시급

최근 창업박람회 참가해 치킨 가맹본부에 3500만원을 납입하고 광주에 가맹점을 개설한 A씨는 가게를 연 후 매출이 계약 당시 가맹본부로부터 받은 예상수익보다 턱없이 모자라자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을 제기했다. 다행히 조정이 성립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2500만원을 환급받았지만, 마음고생은 물론 한 달간 3차례나 서울 본원을 찾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권에서 공정거래 분쟁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분쟁이 늘자 일부에서는 본원이 있는 서울이 아니라 호남지역에 조정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정위 산하기관이다. 주로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로 인한 분쟁을 조정한다.

이대. 이 과정에서 지역의 분쟁조정 신청인은 많을 경우 3~4차례 서울 본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과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또 다른 산하기관인 한국소비보호위원회가 지난 2012년 광주지원을 신설, 지원장을 포함해 6명의 인력을 근무토록 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의 등과 같이 현지밀착형 조정행정이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가맹점 관계자는 “복잡한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도 조정위원들의 도움으로 대안을 찾는다는 점에서 분명 고마운 제도임에도, 지역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순중 공정거래조정원장은 “분원을 운영하려면 최소 1년에 2억~3억 원은 드는데 본원의 한정된 예산으로선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분쟁조정제도 설명회와 찾아가는 순회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에서 제8차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열고 종합검사의 하도급대금 부당결정 등 82건에 대한 분쟁사건을 심의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여름 정기세일에 앞서 그랜드 세일로 손님을 모으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백화점, 3년째 한달간 여름 세일

불황 극복 초반 매출 올린

협력업체도 제고상품 소진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주요 백화점들이 여름 정기세일을 올해도 한 달 동안 진행한다. 세일 기간이 길어지면서 세일 역량을 초반에 올린다는 새로운 풍속도도 나타나고 있다.

23일 지역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롯데 등 주요 백화점들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한 달간 여름 정기세일을 실시한다. 백화점 여름 세일이 한 달 동안 진행되는 것은 2012년부터 3년째다. 이전에는 세일 기간이 17일이었다. 그러나 불황으로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자 세일 기간을 두 배 가까이 늘린 것이다. 여기에 협력업체도 늘어난 봄·여름 제고 상품을 소진하

고 지금을 순환시켜야 할 필요성을 백화점에 제기하면서 세일 기간이 길어졌다.

하지만 세일 기간이 길어지면서 의외의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세일 기간이 길어진 덕분에 전체 매출은 신장했지만 초반 매출이 줄었기 때문, 매출 확대를 위해선 마냥 웃으면서 기다릴 수만은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백화점은 초반 매출 비중을 높이기 위해 세일 역량을 집중하는 등 초반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17일만 세일하면 행사가 종료하는 7월 중순 이후에는 여름휴가가 시작돼 매출이 좀처럼 늘지 않는 어려운 시기를 맞는다”며 “이 때 여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세일을 진행하는 것이 고객을 점프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세일 기간을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74.92 (+6.85)
- ▲ 금리 2.69%(+0.03)
- ▼ 코스닥 529.96 (-6.73)
- ▼ 환율 1018.50원 (-2.10)

광주 기업들 경기 호전 기대감 지속

광주상공회의소 조사

3분기 기업경기지수 103

광주지역 기업들의 체감경기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3분기에도 여전히 경기 호전 기대감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가 23일 내놓은 ‘2014년 3·4분기 제조업 기업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지역 12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BSI(기업경기실사지수, 기준치=100)가 ‘103’으로 집계됐다.

이는 2분기(116)보다 13포인트가 하락한 수치로, 최근 원·달러 환율 급락 악재가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체감경기를 위축시켜 전체 지수를 끌어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2분기 연속 기준치인 100을 상회해 지역기업들은 경제상황을 지켜보며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기업들의 현재경쟁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 경기가 전반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115→109)과 내수기업(110→103)이 기준치(100)를 웃돌아 향후 경기를 다소 긍정적으로 본 반면, 대기업(121→68)과 수출기업(135→100)은 큰 폭으로 하락해 전 분기보다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 사고가 경영실적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별다른 영향 없음’(60.8%), ‘다소 부정적’(32.5%), ‘부정적’(5.0%) 순으로 응답했으며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와 전기·전자 등은 별다른 영향을 체감하지 못한 반면, 음식료 등 내수 소비재 관련 업종의 업황에는 주문 축소 등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이 경기회복 기대감을 이어가고 있으나 수출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환율 급락으로 인한 충격이 체감경기에 반영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기아차 신형 ‘올 뉴 카니발’ 본격 판매

사전계약 20일 만에 1만2000대의 실적을 올린 기아자동차의 ‘올 뉴 카니발’이 23일부터 본격 판매에 들어갔다.

9년 만에 출시된 3세대 카니발은 하루 평균 600대씩 계약실적을 기록하며 기아차의 월간 판매목표인 4000대를 두 배 이상 뛰어넘을 정도로 호평을 이끌어 내고 있다.

신차는 이전 모델에 비해 더욱 세련되고 볼륨감 있는 스타일로 재탄생했으며, 세계 최초로 4열 팝업 싱킹 시트(Pop-Up Sinking)를 적용하고 보조 시트를 전개하는 등 실용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연비 또한 기존 모델보다 5.5% 향상된 11.5km/ℓ로, 연비 개선 기술을 적용했으며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주요 사양 기본 적용 등 뛰어난 상품성 개선에도



불구, 인산폭을 최소화했다. 가격은 자동변속기 기준, 9인승 모델이 2990만~3630만원, 11인승 모델은 2720만~3580만원이다. (자동변속기 기준)

기아차 관계자는 “올 뉴 카니발은 기존의 미니밴 고객들뿐만 아니라 레저 및 캠핑용 차량을 찾는 가족단위 고객들에게도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세일골

“지역 경제 도약 힘 보태겠다”

이명중 한은 광주전남본부장



“연구역량 확충은 물론 지자체, 연구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심층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24일자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에 부임한 이명중(53) 본부장은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해 지역 경제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다. 신임 이 본부장은 김중수 전 한은 총재 시절 ‘김중수 키즈’로 불리는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대전교과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이후 금융시장국 차장, 국제국 팀장, 공보실장, 인사경영국장 등을 지냈다. /김대성기자 bigkim@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기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복공알가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X,핀X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大山프리모가발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전 시공후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텀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산구 381-0061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라남도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